

[로스쿨 소식]

법무부, 변호사시험 노트북 사양 공개... ‘CPU i5 · RAM 16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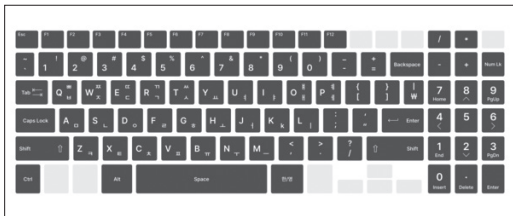
내년 1월 시행되는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에 사용될 노트북 컴퓨터 사양이 공개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법학전문대학원 25곳에 공문을 보내,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에게 안내해달라며 컴퓨터 사양과 키보드 타입을 공개했다.

CPU는 코어 i5(11세대)를 쓰고, 메모리(RAM)는 16G를 장착한다. 저장장치는 SSD로 용량은 256G다. 화면크기는 15.6인치이며 운영체제는 윈도우 10(64비트)을 사용한다.

11세대 i5와 16G 메모리는 온라인 게임 구동도 가능하다는 평가다. 논술형 답안작성 프로그램 구동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월 14일부터 18일 시행 예정인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일하게 CBT 방식으로 시행된다.



<변호사시험 답안 작성용 키보드 형태 [자료=법무부 제공]>

앞서 법무부는 6월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관련,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두 곳에서 CBT를 시범 도입했다. 약 200명을 대상으로 CBT 방식을 검증한 결과 별다른 문제 없이 마무리됐다.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인 만큼 법무부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9~11일에는 법무부 관계자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각 학교 담당자 및 시험관리관(외부기관)을 초청해 CBT 프로그램 사용 방법 및 시험 진행 요령 등을 교육한다. 이어 제2차 모의시험 전날인 13일에도 각 법전문대학원 시험장을 찾아가 최종 시설 점검과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논술형 답안 작성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수험생들을 위해 ‘튜토리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직접 경험해보고 적응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튜토리얼 프로그램은 오는 7일 오후 2시 공개할 예정이다. 법무부 홈페이지나 변호사시험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변호사시험 CBT 프로그램 체험하기’를 누르면 접속할 수 있다.

(출처/로스쿨타임즈)